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⑧

제12 현수품(賢首品)에서는 믿음의 역할(功能)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믿음이 만족하게 되면 성불에 이르게 된다(信滿成佛)는 뜻으로 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불교에서도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공덕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믿음은 도의 근원 공덕의 어머니라 온갖 모든 선법을 길렀으며 의심의 그늘 끊고 애착을 벗어나 위없는 열반의 도 열어 보이네 信爲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 斷除疑網出愛流 開示涅槃無上道 / 믿음은 온갖 마의 길에서 뛰어난 위없는 해탈의 도를 나타내 보이니라. 믿음은 공덕의 파괴되지 않는 종자요, 믿음은 깨달음의 나무를 생장케 하며(信能超出衆魔路 示現無上解脫道 信爲功德不壞種 信能生長菩提樹)”

는 계승이다. 또 아래의 두 계승은 유통(流通)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니, 현수품도 독립된 경전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혹은 동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서방에서 정을 좇아 나오고 혹은 서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동방에서 정을 좇아 나오며(或於東方入正定 而於西方從定出 或於西方入正定 而於東方從定出) / 동자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장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좇아 나오고, 장년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노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좇아 나오며(童子身中入正定 壯年身中從定出 壯年身中入正定 老年身中從定出) / 열 세계 티끌 수의 증생이 있는 곳에 다 걸릴 거리를 보시하며 한 걸음 지내더라도 그것의 복덕은 수승함이 되지 못하거나, 이 법을 믿는 것은 가장 수승함이 되느니라(十刹塵數衆生所) ”

깨달음의 나무 키우는 믿음

의심 끊고 해탈로 이끄는 도의 근원

“또 광명을 놓아 꽃으로 장엄 하니 가지가지 묘한 꽃이 모여 휘장이 되는지라 널리 시방의 모든 국토에 흠서서 일체 큰 덕 높은 이계 공양하느니라(又放光明華莊嚴 種種妙華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 또 광명을 놓아서 향으로 장엄 하니 가지가지 묘한 향이 모여 휘장이 되는지라 널리 시방의 모든 국토에 흠서서 일체 큰 덕 높은 이계 공양하느니라(又放光明香莊嚴 種種妙香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

위의 계승은 부처님께 꽃, 향, 축, 쌀, 차, 과일로 올리는 정성스런 공양 즉 화엄시식(華嚴施食)에서 볼 수 있는 ‘육법공양(六法供養)’의 사상적 기반이 된 계승이다. 부처님 오신날로 시작하는 가정의 달 오월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로 이어지나, 이런 계승의 정신으로 정성 다해 부모님과 스승님께 마치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해 하라.

이제 현수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위의 두 계승은 화엄의 일진법계(一眞法界)·무진연기(無盡緣起)의 사상을 대변하

悉施樂具經一劫 彼之福德未爲勝 信此法者爲最勝 / 열 세계 티끌 수의 여래께서 계산 곳에 다 모두 받들어 섬기며 한 걸음 지내더라도 만약 이 품을 능히 위우고 지니면 그 복이 가장 수승하여 저보다 많으리라(十刹塵數如來所 悉養承事盡一劫 於此品能護持 其福最勝過於彼) ”

가름 끝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단비(甘雨)라 한다. 또 모든 높은 이계 공양하느니라(又放光明香莊嚴 種種妙香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 또 광명을 놓아 꽃으로 장엄 하니 가지가지 묘한 향이 모여 휘장이 되는지라 널리 시방의 모든 국토에 흠서서 일체 큰 덕 높은 이계 공양하느니라(又放光明香莊嚴 種種妙香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

이렇게 하여 두 번째 보광명전(普光明勸) 법회가 마무리되었다. 다음 호에서는 ‘세 번째 도리천궁(刀利天宮) 법회’로 찾아갈 것이다.

▲불교신문사 능엄학림 연구원



그림·문병성

‘삶의 양날개’ 과학과 종교

불교와 과학 <27>

나는 누구인가? 복잡한 현대산업사회 속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본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기껏해야 나는 내 직장의 총무부 대리이고 동네 조기축구회 총무이며, 고등학교 동창회 간사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등등의 역할의 집합으로서 나를 규정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자아는 지난 호에 이야기했듯이 집착의 자아를 낳을 뿐이다. 이런 자아는 곱질을 벗기고 또 벗기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양파와 같은 자이기도 하다. 역할의 집합으로서의 자아는 결국 기계 부품들의 집합으로서의 자아와 연관성을 지닌다.

기계를 조립하는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들은 똑같은 부품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맞추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뿐이다. 어떤 노동자가 소변이 마려워도 그 노동자의 생리적 상황에 맞추어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는다. 단지 컨베이어벨트가 정기적으로 멈추는 휴식시간에 그 노동자는 참고 있던 조편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공장 시스템은 인간을 위해서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위해서 인간이 있는 셈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이를 일러 철학에서는 소외라고 말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소외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인간이 기계로부터 혹은 물질문명으로부터 당하는 문명적 소외를 말하고 있다.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30년대 영화 중에서 ‘모던 타임즈’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제목처럼 그 영화가 말하려는 내용은 튜니바커로 상징되는 초물림 시대의 기계성에 의해서 인간의 인간성이 상실되고 기계의 노예로 전락되어 가는 피폐화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이 앞서 말한 철학적 소외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삶의 소외는 다시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되었다.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의 과학기술이 이제는 오히려 과학기술이 주인공 행세를 하고 인간이 도구화되어 가고 있다. 도구화되어 버린 인간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부터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난다.

극도로 산업화되어 가는 현대 과학기술사회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란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은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종교를 가장한 주술과 신비주의 중독이나 정보 유포피해를 가장한 인터넷 게임 중독 혹은 소비 중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중독현상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면서 어디엔가 자신을 정착시킬 데 없는 표류하는 삶의 방황이기도 하다. 문제는 자신을 상실하고, 자연을 상실하고, 나아가 미래를 상실하는 중독증이 인간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상업주의가 결정해 준 결과라는 데 있다. 그런데 잉여의 소비재까지 소비하도록 만드는 현대 산업사회의 진짜 문제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소비 주체인 자기 자신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역류 구조에 있다.

아마도 현대인에게서 과학기술은 피해갈 수 없는 문명적 통제제의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미래 상황이라면 소외에 따르는 다양한 중독 현상들도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기술에 소외된 인간은 어디에 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정착해야 할 자비와 사랑의 터전이 있어야 한다. 결국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종교가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과학과 종교는 삶의 양쪽 날개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도 좋다. 문제는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주술적 종교로 가는 것을 미리 경계해야 한다. 종교를 방자한 주술주의는 과학의 맞은 편 날개가 아니라 과학과 종교 모두를 거꾸로 내용기치는 회오리바람이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다.

인듯 모순적으로 보이는 과학과 종교가 삶의 양쪽 날개라는 이야기는 과학과 종교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종교의 미래가 안고 있는 문명적 과제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런 뜻에서 볼 때 불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 크다. 신비주의를 경계한다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고, 문명 중독증을 해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한편 중국측의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애초 세계 최대의 불상을 건립하려면 인도가 발판하고 나섰다. 인도는 2005년까지 북부 비하르주 보드가야에 151.5m 높이의 청동불상을 세운다는 목표 아래 영국에 이미 제작을 의뢰한 상태이다. BBC 방송은 “인도가 중국측의 지장보살상 건립을 계기로 당초 계획보다 4-5m 더 높게 불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종덕/상지대 교수(dchoi@chiak.sangji.ac.kr)

155m 세계최대 불상 2004년 구화산에 우뚝

지구촌 불교 / 김지장 동상 건립

통일신라시대의 고승인 김교각 스님(659-794)의 모습을 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청동 불상이 중국 구화산에 세워진다.

영국의 BBC 방송은 6일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 “신라 왕자로서 중국에서 지장보살의 현신으로 추앙받은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이 모셔져 있는 구화산에 1천톤 규모의 청동 지장보살상이 건립된다”고 보도했다.

구화산불교협회가 중국 중앙정부에 건의해 오는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지장보살상은 연화좌대를 포함해 155m에 이르는 높이로 2004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파과된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석불의 3배(53m)에 달한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 불상은 93년 일본 도쿄에 세워진 120m 높이의 청동대불이다.

불상 제작에는 총 7천만 달러(약 9백억 원)가 소요될 전망이다. 불상 제작비 1천 8백만 달러에 동상전, 산문전, 위타전, 천왕전, 대웅보전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경관 조성비 5천 5백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이 불교성지로 조성하기로 한 구화산은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등과 함께 중국 4대 불교명산의 하나이다. 당나라 <구화산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에 모셔진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

지장보살 추앙 김교각 스님 기려

9백억 투입... 청동 1천톤 들어갈

화성기)에 따르면 신라 성덕왕의 장자인 김교각 스님이 구화산 일대에 수행하며 이 곳 주민들의 불심을 닦은 이래 명 청 시대에는 구화산 일대의 사찰의 수가 300-400 개나 되고 승려의 수도 4000-5000 명이나 되는 불교성지로 발전했다.

그러나 구화산 불교성지는 전란과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찰과 건물들이 파손된 현재는 사찰 94개에 800여 명 남짓한 스님과 불교 유물 2000여 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구화산불교협회는 구화산에 명실상부한 불교성지를 건립을 발원, 김교각 지장보살상을 세울 것을 중국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김교각 스님은 구화산에서 75년 동안 수행을 한 뒤 99세에 입적했는데, 석지 않은 육신의 모습이 지장보살과 흡사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등신불은 현재까지도 구화산 육신보전에 모셔져 있다.

한편 중국측의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애초 세계 최대의 불상을 건립하려면 인도가 발판하고 나섰다. 인도는 2005년까지 북부 비하르주 보드가야에 151.5m 높이의 청동불상을 세운다는 목표 아래 영국에 이미 제작을 의뢰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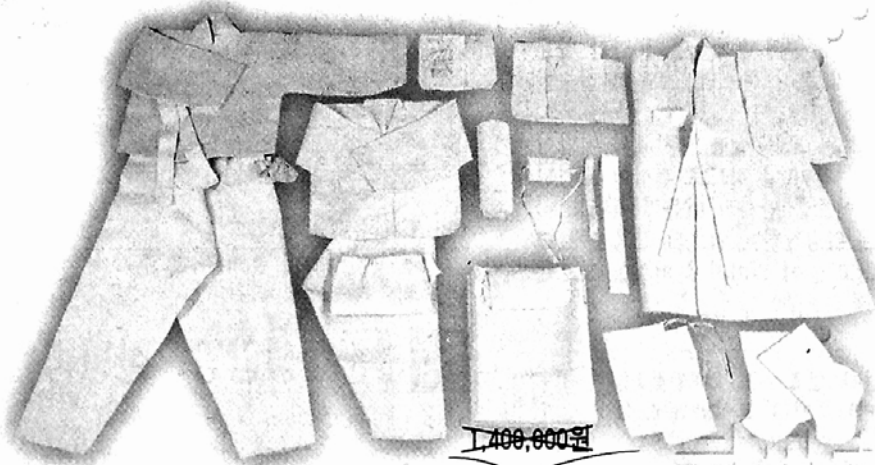
BBC 방송은 “인도가 중국측의 지장보살상 건립을 계기로 당초 계획보다 4-5m 더 높게 불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동 지장보살상 건립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구화산 방장인덕 스님이 발한 한 바 있다. 이 때 인덕스님은 “지장보살상은 구화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공사로 한 중 앙국 불교계가 다함께 이루어 내야 할 불사”라며 “우리들은 지장 스님이 직접 창건한 구화산 도량을 세간에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하여 양국 불교계 인사들과 사회 각층이 손을 맞잡아 천추에 길이 빛날 위대한 불사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불교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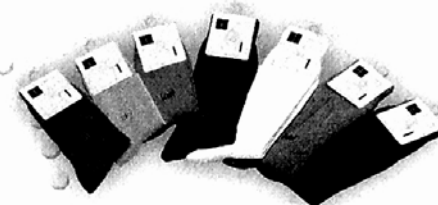
— 孝 · 道 · 佛 · 事 —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도도 짓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48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 262cm(길이)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 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